

# 美민주 “방위비협상 장기화, 한반도위험 증가”

### 상원 외교·군사위 간사

### 국무·국방에 공개서한

### 美행정부 입장 재고 촉구

미국 민주당의 외교·군사 분야 중진 상원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미 국무·국방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 서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라는 극히 이례적 형식을 통해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며 노골적 증액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날 하원 군사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위원장 등으로부터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등 미국의 협상 태도가 한미동맹 등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스,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한국과의 SMA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이전 SMA가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

의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우리와 한국의 동맹은 적성국들을 억압하고 역내 안정을 제공하며 역사 미군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향상하는 자라렛대를 부여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장하며 우리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협상 태도는 이러한 핵심 원칙과 모순되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레이트만 하는 중요

한 영역이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지난해 협상 결과와 관련, “한국이 1년간 거의 9억2천500만달러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한 2019년 합의가 이뤄진 뒤 국방부는 의회 앞에서 ‘현 방위비 분담 합의가 공평하며 상호 호혜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합의에 대해 ‘공평하고 상호호혜적’이라고 평가한 미 정부가 1년 만에 5배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핵·탄도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프로그램에 의한 심각하고 증대하는 위협에서부터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단합된 접근법 구축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SMA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애플, 지난해 4분기 매출 108조...사상 최대

### 전년 동기보다 8.9% ↑ ...아이폰·에어팟 등 판매 확대

애플이 작년 4분기(애플 자체 기준으로는 1분기)에 아이폰과 무선 이어폰 에어팟 등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918억2천만달러(약 108조원)로 전년 동기의 843억1천만달러에서 8.9% 상승했다. 아이폰과 에어팟, 애플워치 등의 기기 판매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스트리밍 TV 구독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매출도 늘어난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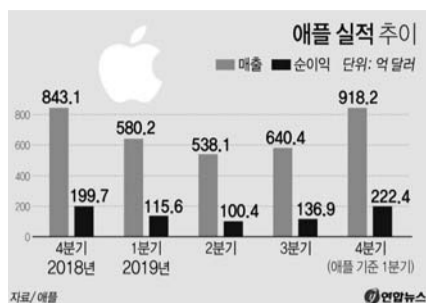
간판 제품인 아이폰은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이 다시 50%를 넘어서며 매출액이 559억6천만달러(약 65조8천억원)로 전년 4분기(519억8천만달러)보다 7.7% 상승했다.

순이익은 같은 기간 199억7천만달러에서 222억4천만달러(약 26조1천억원)로 11.4% 증가했다. 주당 순이익은 4.99달러로 금융정보 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증권가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 4.54달러를 상회했다.

WSJ은 이번 실적을 두고 애플이 정상적인 기량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애플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분기 매출을 매년 기록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애플은 작년 초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부진과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이던스(실적 전망치)



자료/애플

망)을 낮췄다. 애플은 이후 TV 스트리밍 서비스와 뉴스, 게임 등 구독형 서비스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하고 에어팟·애플워치 같은 액세서리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애써왔다.

투자회사 애덤스 펀드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스토클은 이번 실적을 두고 “여전히 서비스가 애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팀 쿡 애플 CEO가 신상품을 통해 단지 매출과 수익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회사의 간판 상품인 아이폰이 수혜를 보는 생태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올해 1분기 실적도 장밋빛으로 예상했다. 매출액은 630억~670억달러로 역시 월가 컨센서스 624억1천만달러를 상회했다.

애플은 또 올가을 5세대 이동통신(5G)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가는 5G 아이폰이 출시되면 아이폰 판매가 다시 한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 이집트의 ‘슈퍼맨 아빠’

### 철로에 떨어진 딸 구해

철로에 떨어진 딸의 목숨을 구한 이집트인 아빠의 용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철로 구석에서 한 성인 남성이 어린 딸을 끌어안고 바짝 누운 채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담긴 약 15초 짜리 동영상상이 퍼지고 있다.

이들이 몸을 조금만 세우거나 옆으로 몸을 돌려도 달리던 기차와 부딪힐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소리로 동영상에 담겼다.

트위터에는 “딸을 구한 슈퍼 영웅”,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장면” 등 남성을 칭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집트 매체 이집트투데이에는 이 동영상 이 지난 27일 아침 이집트 동북부 도시 이스마일리아의 기차역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차역에서 딸이 실수로 철로에 떨어지자 아빠가 딸을 구하려고 철로에 뛰어내린 뒤 딸을 안고 몸을 숙였다.

불과 몇초 뒤 기차가 딸이 떨어진 지점에 진입했고 아빠는 떨리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딸을 안고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부녀 모두 다치지 않았다. 아빠의 나이는 50대이고 딸은 13~14세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로 주변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조되는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응급병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지고 있는 응급병원 건설 현장을 28일 촬영한 항공사진.

# 미군, 아프간 추락 군용기서 시신 2구 수습·블랙박스 회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즈니주에서 추락한 군용기 E-11A에서 시신 2구를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해는 지역 주민에 의해 품위 있게 수습됐고 비행 데이터가 담긴 기록 장치도 28일 함께 수거됐다고 미군은 설명했다.

시신 2구는 미군 항공기에 실려 옮겨졌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추락 항공기의

잔해는 미군에 의해 파괴됐다.

미군은 성명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다만, 적군에 의해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탈레반은 미 군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미군은 “사전 조사 결과 기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시신 2구만 수습했다는 미군 측

설명과 달리 해당 항공기에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사고지점에서 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고, 가즈니주 경찰서장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4명 시신이 있고, 2명은 실종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공군 소속 E-11A 항공기는 지난 27일 오후 가즈니주의 탈레반 통제 지역에 추락했다.

# 구글, AI로 공익사업...멸종위기 고래 추적

### 연설 문자화 서비스도...암·안과 질환 징후 포착 실험

구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를 추적하고 연설을 실시간으로 번역한 뒤 이를 글로 받아쓰는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사업들을 소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구글은 이날 AI를 이용해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시애틀 인근의 살리시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범고래를 추적하는 사업을 공개했다. 이 회사가 AI를 활용해 진행하는 ‘생물음향학’ 프로젝트의 한 갈래다.

한때 이 해역에는 수백 마리의 범고래가 서식했으나 지금은 개체 수가 73마리로 크게 줄었다.

이 고래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단체인 ‘캐나다 어장-해양(DFO)’에 따르면 범고래의 개체 수 감소는 먹이 부족과 오염 물질, 선박 항행 등 때문이다.

구글은 환경단체와 협업체 ‘딥 뉴럴 네트워크’ AI가 자동으로 범고래의 소리를

포착한 뒤 캐나다의 항만 당국에 경보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항만 당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상하거나 아픈 범고래를 치료하고, 기름 유출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범고래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들이 기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장비를 사용해 유도한다.

범고래의 소리를 학습하기 위해 구글은 DFO로부터 1천800시간 분량의 수중 오디오 데이터를 받아 이를 분석했다.

또 다른 구글의 AI팀은 이날 실시간으로 사람이 하는 말을 글자로 받아쓰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구글은 이미 자사 스마트폰 픽셀에서 사람의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통역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장할 것이다.

구글은 또 의료 진단 영역에서도 AI를 이용해 암이나 안과 질환의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조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